



동물을 세다

✎ Zanele Buthelezi, Thembani Dladla, Clare Verb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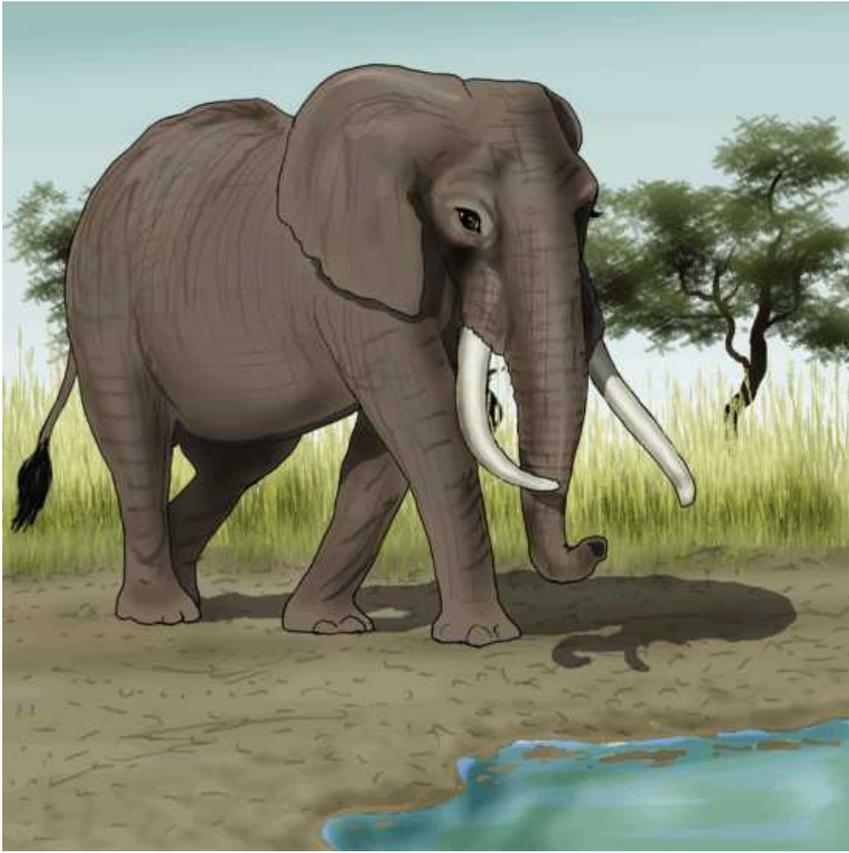
👤 Rob Owen

🗨️ Scarlet Kim (김새봄)

💬 Korean

📊 Level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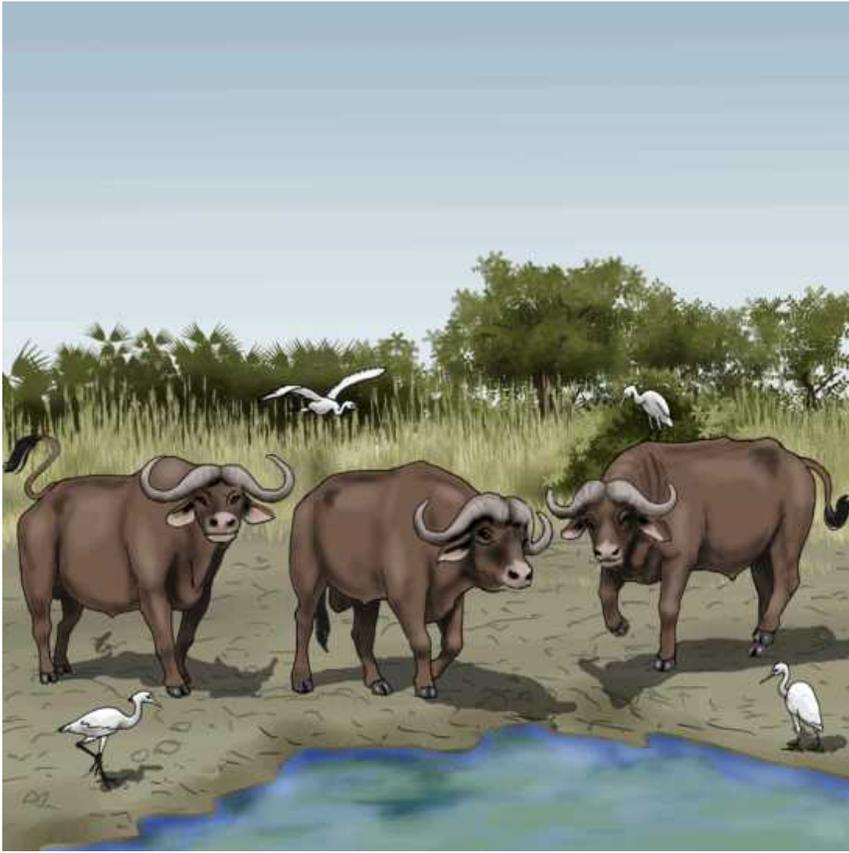




한마리의 코끼리가 물을 마실 것이다.



두마리의 기린이 물을 마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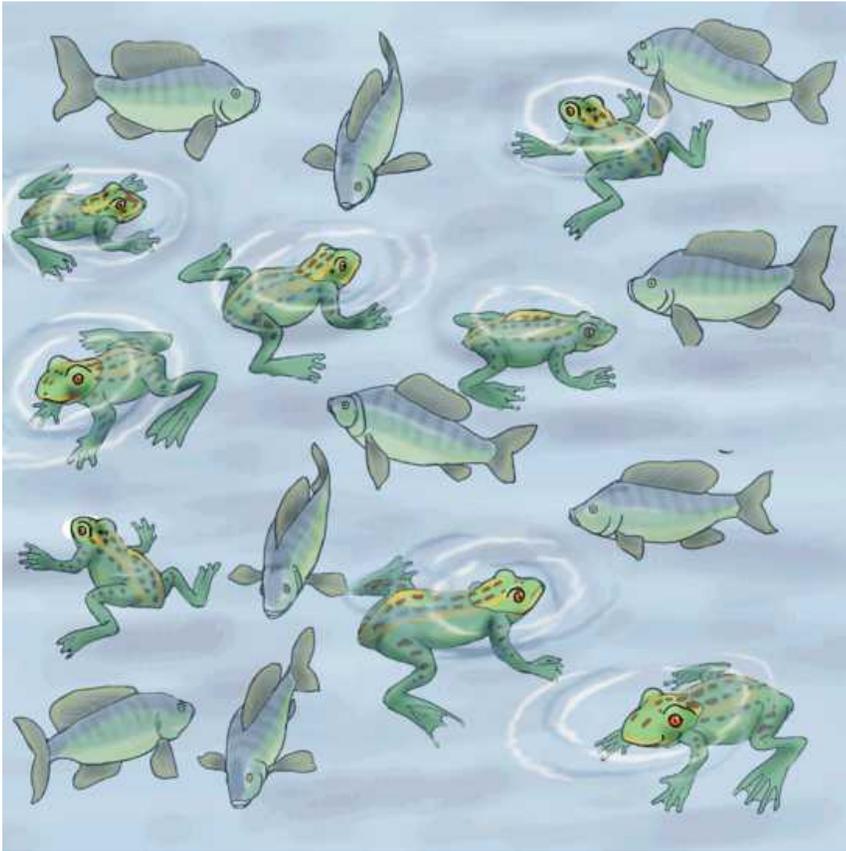
세마리의 버펄로와 네마리의 새들이 물을 마실 것이다.



다섯마리의 임팔라와 여섯마리의 멧돼지들이 물을 마시러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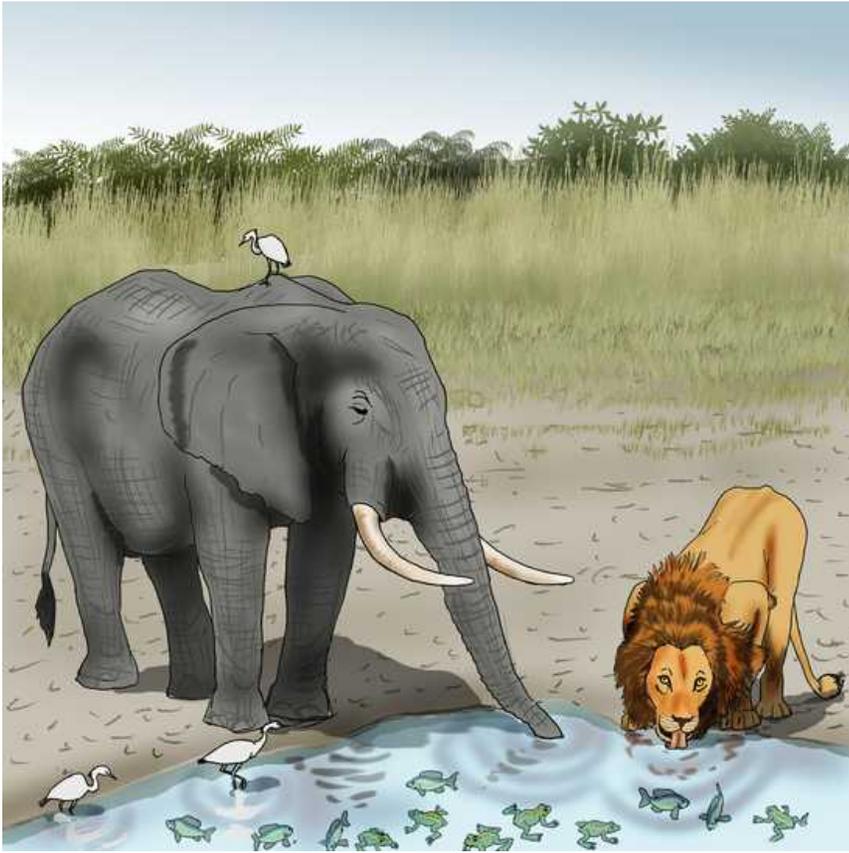
일곱마리의 얼룩말들은 물을 마시러 달려가고 있다.



여덟마리의 개구리와 아홉마리의 물고기들이 물안에서 헤엄치고 있다.



한마리의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사자도 물을 마시고 싶어한다. 누가 사자를 두려워 하는가?



한마리의 코끼리가 사자와 물을 마신다.



Storybooks D.C.

global-asp.github.io/storybooks-dc

동물을 세다

Written by: Zanele Buthelezi, Thembani Dladla, Clare Verbeek

Illustrated by: Rob Owen

Translated by: Scarlet Kim (김새봄)

This story originates from the African Storybook (africanstorybook.org) and is brought to you by [Storybooks D.C.](https://global-asp.github.io/storybooks-dc) in an effort to provide children's stories in DC's many languages.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International License](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